



서울올림픽 成功精神으로

錦繡江山을 더욱 맑고 푸르게!

文 胎 甲

우리나라의 국토는, 예로부터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물론 이웃 나라 여러 사람들의 칭송과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아세아 대륙의 동북방에 다소곳이 자리잡은 반도지역 특유의 빼어난 아름다움과 인간 생활에 가장 적합한 풍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錦繡江山 바로 그것이기애 수많은 문필가의 詩歌와 역사기록에 그 아름다움과 은혜로움이 예찬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인젠가 부터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과 국내 상대가 문란해 짐에 따라, 그와같은 國土禮讚意識은 미상불 우리의 국민생각에서 멀어져 가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산업화 추세에 밀려 예찬은 커녕 오히려 크게 훼손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민족적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의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아갈 젊은 청소년들이 우리 땅의 혜택받은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과 긍지가 부족한 것은 뜻있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서울 올림픽을 통하여 우리 국민 모두는 산자수명한 우리 국토의 참된 모습과 風光의 빼어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껍이나 다행스럽고 뜻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찾아온 외국사람들이 우리 땅 여기 저기의 맑은 강 푸른 산에 매료되어 칭송을 연발하고, 또한 해맑고 따스한 가을 햇살을 시새움이라도 하는듯 옷을 훨훨 벗어 제끼고 일광욕을 즐기는 광경은 우리들에게 새삼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국민이 서울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 민족적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한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커다란 수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올림픽을 더욱 빛낸 우리의 금수강산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여러해동안 국가 경제의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물질적 삶의 수준을 어느정도 높이는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최대행사라고 일컬어 지고 있는 세계 올림픽대회를 온 국민의 힘을 모아 보람있게 치루어 냈습니다. 그것도 가장 크고 가장 훌륭하게 말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대량생산을 통한 삶의 양적 확대보다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질의 향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학자가 말했듯이 「우리 주위의 모든것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質 높은 삶의 바탕과 터전이 바로 우리들의 숨쉬고 사는 우리의 강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서울올림픽을 치루어낸 저력을 국립공원을 비롯한 우리의 금수강산을 더 맑고 푸르게 가꾸는데 온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우리모두의 자산을 소중하게 간직함으로써 삶의 즐거움을 갖고 또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귀중하고도 값진것을 물려 주어야겠습니다.

〔本會理事・汎民族올림픽推進中央協議會推進本部長〕